

[감상]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탈유교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산지니

사사키 류지, 정성진 옮김(2016;2020).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산지니.

1) 이 책은 자본론과 마르크스의 사상 변화를 쉽게 정리한 교양서다.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훑어 보았다. 어소시에이션, 물질화, 물질대사, 생태, 젠더, 전근대 공동체 등. 특히 말년의 마르크스가 물질대사에 기초해 생태, 젠더, 전근대 공동체를 재평가했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저자인 사사키 류지는 일본 차세대 마르크스 연구자 그룹의 일원으로, 주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는 다른 비판적 마르크스 경제학자라고 한다. 새롭게 MEGA 전집을 통해 출판되고 있는 발췌노트를 중심으로 문헌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2) 어소시에이션

이 책에서는 『자본론』의 변혁 구상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한다. 노사관연의 어소시에이션 비판([\[http://lodong.org/wp/archives/10687\]](http://lodong.org/wp/archives/10687)(<http://lodong.org/wp/archives/10687>))과 함께 읽어보니 자본론에 대한 오독이라는 평이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말년의 마르크스 사상을 자본론에 끌어다 쓰려던 작업인 것 같다가도, 또 자본론과 그 이후의 변화들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 외에 자본론 자체에 대한 분석은 깊게 읽지 못했다.

3) 『자본론』의 개량 투쟁 중시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1848 혁명을 계기로 구축한 '공황혁명론'을 철회하고 장기적인 개량 투쟁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물론 혁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모순을 드러낼수록 변혁이 쉬워질 것이라는 관점을 버린 것이고, 생산양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정치혁명 뿐 아니라 '어소시에이트한' 노동자들이 물상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만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폐기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노동의 존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

4) 마르크스 사상의 변화 키워드: 물질대사.

마르크스는 농화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자본론 이전에 사용된 유기체의 순환적 생명활동인 물질대사 개념은 경제사회의 순환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 그런데 경제학과 농화학 연구를 심화함에 따라 생태적 관점에서 물질대사 개념을 적극 차용했는데, 특히 자본론에서 리비히의 약탈농업 비판을 고평가한다.

저자는 물질대사가 자본론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노동을 "인간이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자신의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물질대사를 교란하므로 여기에 저항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어소시에이션이 또다시 나온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전망한 미래 사회는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제어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5) 발췌 노트

마르크스 말년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초고나 저작을 제대로 쓰진 못했지만, 많은 수의 발췌 노트가 있어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적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생태, 젠더, 공동체 등으로 분류한다.

6) 생태

당대 경제학자들은 중요하게 다룬 리비히의 약탈농업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물질분배의 의식적 규제를 주장했다. 마르크스도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말년의 마르크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농학자 프라스의 기후변화론을 검토한다. 1868년의 초고에서 자본주의적 입업 경영으로 삼림이 파괴되는 현상을 다루는데, 이를 프라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프라스 이외에도 삼림 파괴, 토지 피폐, 자원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지질학, 광물학, 식물학, 유기화학 등에 대한 발췌노트를 남겼다.

7) 공동체 연구

1850년대 초까지의 마르크스는 전근대 공동체의 파괴를 식민지배에 의한 것이더라도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보았다. (뉴욕 트리뷴 - 잉글랜드의 인도 지배, 1853) 그러나 1857년 이후 저항 운동에 대한 지지와 반식민주의를 명확히 하고, 전근대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등 자본론을 저술할 때까지 근대주의적 역사관을 탈피했다.

그런데 말년의 편지와 초고에서는 이를 넘어서 러시아의 농경공동체를 고평가한다. 그 이중성(원시공동체의 공동소유↔성과의 개인소유)의 생명력이 물질대사의 교란을 막으면서도 생산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농경공동체가 국가의 착취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발전 조건을 확보하면 공산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발췌노트에서 다른 지역의 민족공동체를 발췌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마르크스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으리라고 추측한다.

8) 젠더

마르크스의 사유는 물질대사에서 공동체로, 다시 젠더로 옮겨간다(책에서 젠더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젠더와 마르크스 시기의 젠더는 차이가 있지 않나?). 물론 마르크스가 젠더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성의 평등에 대해 자본주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마르크스 말년의 발췌노트에서 젠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보인다. 인류학적 저작인 모건의 『고대사회』를 많이 참고했는데, 같은 책과 마르크스의 발췌노트를 참고한 엥겔스의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과 논조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의 원인을 사적 소유의 성립에서 찾았는데, 마르크스는 씨족제 사회에서도 젠더 차별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또 사적 소유 성립 이후에도 고대 그리스보다 로마가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에 주목했다. 즉, 사적 소유라는 사회 형태가 젠더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저자는 마르크스가 젠더 고유의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대한 저항력이 될 수 있음을 보려 했다고 주장한

다.

9) 감상1

앞의 1장에 나오는 공산당 선언까지의 마르크스 사상과 2장의 자본론 분석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읽었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오독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마르크스가 말년에 러시아 혁명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생태와 젠더의 문제에도 폭넓으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어소시에이션이란 개념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도 논리적 전개가 부실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젠더 문제 부분이 그렇다. 아무래도 발췌노트란 것이 마르크스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 것보다 말 그대로 발췌한 문장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 행간을 채우는 일은 상상력으로밖에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법의 한계는 감안하고, 저자의 주저작이 번역돼 나오면 이에 대해 깊이 알 수도 있겠다.

10) 감상2

이 책을 붙잡게 된 것은 요새 관심 있는 생태사회주의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를 쓴 사이토 코헤이와 저자의 대담([\[http://platformc.kr/2020/06/why-need-marxs-socialism-now/\]](http://platformc.kr/2020/06/why-need-marxs-socialism-now/)(<http://platformc.kr/2020/06/why-need-marxs-socialism-now/>))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역시 저자가 기존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가득한 듯 싶다. 그럼에도 나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와 거리가 있는 입장에서 시작해서 이런 시도가 마음에 든다.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말년의 마르크스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은 참고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생태사회주의와 에코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을 통합하는 시도의 새로운 근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읽으면서 내가 『자본론』에 대해 역시 잘 모르고 있음도 많이 느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겠다. 또 앞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라고 했지만 주류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런 탐구를 했는지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